



Bernhard Leonardy 교수와 함께

인터뷰 | 김지성 (명지대학교 교회음악 대학원 교수)

Bernhard Leonardy

Walter Giesekeing콩쿨을 비롯 Lorraine,Paris콩쿨에서 1위로 입상하였으며 국내외적인 연주활동과 여러 콩쿨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재 International Institut of Organ(IIO)의 교장으로 있는 베른하르트 레오나르디 교수와 지난 5월 7일에 부천의 서울신학대학교안의 카페테리아에서 만나 자신의 이야기와 오르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김지성 : 지난 여름 독일 자브리켄에서 처음 뵙고 두 번째 만남인데 한국방문은 처음이지요?

Bernhard Leonardy :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방문은 처음입니다. 제가 있는 독일 자브리켄에서 국립합창단과 서울신학대학교 카펠라 합창단 등의 공연을 통하여 한국을 접하였고 지난해 연세대학교의 조명자교수님의 연주회를 제가 있는 성당에서 초청연주를 하여 한국의 합창음악과 오르간음악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회음악과 30주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저를 초청해주어 어제 무사히 연주회를 마쳤고 어제와 오늘에 걸쳐 마스터클래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성 :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Bernhard Leonardy : 그동안 관계하였던 한국 음악인들과 어제 학생들의 연주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음악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음악인들의 삶과 음악이 잘 융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어린 훌륭한 음악인들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매우 자랑할 만한 일이지요. 또한 한국은 굉장히 개방된 예술을 지닌 나라입니다. 또한 한국 음악인들은 여러 다양한 예술을 쉽게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있는 장점이 있지요, 어제 학생들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느낀 점도 학생들이 쉽게 다른 나라의 음악을 접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지성 :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질문 드리는 것으로 선생님은 언제, 어떻게 오르간을 시작하셨는지요?

Bernhard Leonardy : 저의 아버지는 피아노 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접하게 되었지요. 다른 아이들은 휴일이나 주일날이면 연습하지 않고 놀 수 있었지만 전 유감스럽게도 주일날에도 피아노를 연습해야만 했습니다. 아버님이 무지 엄격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주일날 교회에 가면 피아노를 안쳐도 혼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본격적으로 오르간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저의 첫 번 스승은 파울 슈나이더(Paul Schneider)로 유명한 미하엘 슈나이더의 첫 번째 제자에게 배울 수 있었죠. 또한 전 이전에 피아노 테크닉을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오르간을 늦게 시작해서 도움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지성 : 이후 본격적인 오르간수업을 누구와 하였으며 오르간연주자로서 경력은 어떻게 쌓게 되었나요?

Bernhard Leonardy : 이후에 저는 스위스의 바젤음악대학에서는 다니엘 코르젠펜파(Daniel Chorzempa)에게 독일 자브레켄음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파울 슈나이더(Paul Schneider)와 안드레아스 로트코프(Andreas Rotkotp)와 다니엘 로트(Daniel Roth), 세 분에게 오르간을 사사 받았습니다. 이후 1983년 Walter Gieseking 오르간콩쿨과 97년에 프랑스에서 열린 제3회 Region Lorraine콩쿨, 그리고 제2회 Paris오르간콩쿨에서 1위로 입상했으며 연주자로서 제 이름을 조금씩 알리게 되었죠, 또한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태리의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의 마스터클래스에 꾸준히 참가하여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늘리고 섭렵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성 : 다양한 선생님들에게 오르간을 배우시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Bernhard Leonardy : 저는 독일 자브리켄음대에서 공부하면서 같은 시기에 5년 동안 스위스 바젤음악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저에게 첫 번째 스승은 저를 가르칠 때 반드시 어떻게 연주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연주할 수 있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이시기에 전 음악뿐만 아니라 건축과 미술을 같이 접하게 된 것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음악은 동시에 건축이나 미술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스위스 바젤에서는 아주 좋은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역사적인 오르간으로 연주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다양한 오르간을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각각 다른 시대의 작품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 스승이었던 슈나이더 선생에게는 음악을 건축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으며 특히 구조적인 막스 레거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로트코프선생에게는 정말 다양한 새로운 작품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니엘 로트선생에게는 전통적인 프랑스 음악과 노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프랑크오르간음악을 느리게 노래하는 법이지요. 프랑크의 음악은 정말 느리게 노래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곡가지요. 코르젠과선생에게는 한음 한음을 정확하게 건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저에게 좋은 음악가가 되기 위한 서로 다른 좋은 비료의 배양분이었죠.



김지성: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Bernhard Leonardy : 독일 남부의 자브리켄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브리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중 하나인, 무려 250년의 역사를 지닌 성 요한 바실리카 성당(St.Johann)의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자브리켄에서 가장 중심 되는 교회로 가장 왕성한 음악활동을 하는 곳이지요. 제가 있는 이 성당의 오르간은 5단의 손건반을 지닌 거대한 오르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크고 훌륭한 오르간으로 매주 토요일에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연주회 시리즈는 부활절기간을 제외하고는 년 중 계속되며 저뿐만 아니라 세계각지에서 초청된 연주자들의 연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브리켄 성악양상블의 지휘자로 많은 연주회를 하고 있으며 바실리카 합창단과 미사시간에 오케스트라와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김지성 : 또한 선생님은 International Institut of Organ의 교장으로 계시는데, 그 학교 소개를 해주세요.

Bernhard Leonardy : 말 그대로 국제적인 오르간 학교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독일과 프랑스 양국에서 인정하는 디플롬을 주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저를 비롯해 프랑스의 Philippe Delacour교수 등이 오르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2년마다 오르간 콩쿨을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번 대회 때는 참가자가

무리 10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번 콩쿨의 심사위원장으로는 네덜란드의 오스틴교수가
했으며 다음번 콩쿨의 심사위원장으로는 마리 클레르 알랭(M.,C.Alián)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 로트교수의 마스터클래스도 개최하였으며, 특별히 저의 학교의
학생들은 40스톱을 지닌 오리지널 까바이엘 꼴오르간이 있는 프랑스 메츠 대성당의
오르간과 50스탑의 낭만오르간 그리고 최근에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오르간이었던 영국
런던의 버킹햄의 좋은 오르간들을 접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밖에 질버만 오르간
등의 여러 다양한 오르간을 학생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lenardy.org>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지성: 오르가니스트로서 어떤 다른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Bernhard Leonardy: 집에 1849년에 만들어진 아주 상태가 좋은 Pedal Piano를 가지고 있어서 가끔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또한 예전에 만들어진 자동차들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김지성: 자동차를 수집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으셨나요?

Bernhard Leonardy: 물론 파이프오르간보다는 비싸지 않지요. 전 단지 수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몇 십대를 사 모은 것은 아니고 자동차를 잘 정비하고 닦고 아끼는 취미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비싼 차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메커니즘이 저는 좋은 것입니다.

김지성: 마지막으로 한국 오르간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Bernhard Leonardy: 워낙 짧은 기간에 한국 학생들을 접한 것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한국학생들도 유럽의 학생들처럼 본인 스스로 어떻게, 그리고 빠르게 음악을 이해하고 스스로 새로운 방법들에 대하여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국학생들은 음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학생들 스스로 음악마다의 카리스마를 또는 자신고유마다 카리스마를 찾아서 연습하고 연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닉은 개인적으로 연습해야 할 문제지요. 독일에서는 개인의 음악을 존중합니다. 한국의 학생들도 본인마다의 고유한 음악을 스스로 존중하게 된다면 보다 훌륭한 음악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김지성: 피곤하신데도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ernhard Leonardy: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다 많은 한국의 음악인들을 독일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